

20세기 최고의 선승으로, 조계종 중흥으로 선수행의 일가를 이뤘던 성철 스님. 스님이 법문했던 제대로 수행하는 법을 정리한 <선문정로>가 25년만에 현대적인 언어로 재해석돼 <옛 거울을 부수고 오나라>로 다시 태어났다. 평소 성철 스님이 강조한 견성의 올바른 정의와 수행상의 문제 해석을 간추려 수행의 지침으로 삼아보자.



**# 견성이란 무엇인가**  
견성이란 근본 마음자리를 확연히 깨쳐, 중도의 이치를 깨달아 부처가 됐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다. 영명연수 선사는 <능가경>의 말씀을 인용해 '일체 망념이 다 사라지고 진여본성을 증득하여 응통자재하게 된 것'이 견성임을 밝혔다.

구경각 즉 여래지 만이 견성이지 10지 보살도 견성한 것이 아니라는 게 모든 조사스님들의 정설이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견성이란 동정일여(動靜一如), 몽중일여(夢中一如)를 넘어 숙면일여(熟眠一如)가 되어서 얻는 것이다. 견성은 즉 무심이요 구경각이며 대열반인 것이다.

**#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  
'자성을 바로 보면 곧바로 성불한다' 하였는데 자성이란 모든 중생이 지니고 있는 진여의 본성을 말한다. 불성 법성 법신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번뇌 망상에 가려있으면 우리 안에 늘 있는 부처님의 성품을 보지 못한다. 열심히 화두를 들어 확연히 깨치면 빛이 셀 틈조차 없어보이던 그 두꺼운 번뇌 망상도 단번에 확 견한다.

**#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아낙다라삼막삼보리는 무상정각·무상정변지로 번역되는데 정각의 내용이 정변지에 있으므로 동일한 의미다. 무상정각인 정변지는 불교의 최후 구경목표이다. <대반열반경>에서 견성이 곧 구경의 성불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오(解悟)와 분증(分證)을 정설이라 우기는 이단

사실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구경각인 견성은 중생의 근본무명 즉 제8아뢰야의 미세망상을 끊어 없애는 것이다.

**# 일체 망념이 생기지 않음을 깨치다**  
정혜쌍수(定慧雙修), 즉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는다는 말을 하는데 그건 실제 바로 깨친 것이 아니다. 바른 깨달음은 정과 혜를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이다. 마조 스님은 '여래정정선'을, 백장 스님은 '선이란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벗어나는 것이 여래선'이라 말했다.

조사스님들이 전한 것은 여래의 마음

심을 무념이라 한다. 무는 일체 망념이 완전히 떨어진 것이고, 염은 진여자성의 본체가 나타난 것이다. 이 무념이 곧 돈오이고 견성이며 성불이다. 대주해해 선사는 '일체 망념이 단박에 다 떨어지는 것이 돈(頓)이고, 일체 망념이 떨어졌다는 생각마저 없어진 것이 오(悟)'라고 말했다.

참다운 선정이란 무심무념으로서 이익과 손해 등 갖가지 경계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여래선이다. 본성을 분명하게 본 사람은 경계에 동요하지 않고 경계에 동요하지 않아야 성품을 바로 본 것

반드시 정안중사를 찾아가 점검받는 것이 우리 중문의 첩칙이다.

**#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다**  
오매일여의 대무심지를 거쳐 대각을 성취하기 전에 대무심지에 머물러선 안 된다. 대무심지를 구경이라 여겨 주저앉아버린다면 그를 죽은 사람이라 한다. 반드시 그곳에서 살아나야만 진여를 체득한 대자유인, 참 사람,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으니 이를 사중득활(師中得活)이라 한다.

**# 크고 든근 거울 같은 지혜**  
'직지인심견성성불(直指人心見性成佛)'

**# 이해로 깨닫고 점차 닦아 나가리라**  
교가(敎家)의 수행방법인 해오점수(解悟漸修)는 돈증불지(頓證佛地)하는 선문종지와 다르다. 육식을 혼동하면 일대교와 발생한다.

보조지불 국사의 영향으로 해오(解悟) 즉 10신초를 견성이라 여기는 이들이 많다. 허나 그것은 교가의 주장이지 선문의 정통사상은 아니다. 만일 망상과 습기가 남아 있다면 크게 재발심해서 확충대오해야 한다. 점수한답시고 미진한 것을 억지로 없애려다가 두고 보완하려 들면 번뇌와 습기를 더욱 성하게 할 뿐이다.

**# 들은 것이 많아 알음알이만 있다**  
자성을 깨치는데 주력해야지 지혜를 탐닉함은 병이다. 선종에 들어왔으면 불성을 확연히 밝힐 생각을 해야지 알음알이의 증장에 힘써서는 안 된다. 불법은 깨닫는 것이지 사랑분별로 아는 것이 아니다.

보조 스님이 설한 <수심결>의 돈오점수 사상 때문에 지혜의 병이 들어 선을 막는다는 이들이 참공부를 못해 대선지식이 출현하지 못했다. 그러니 그런 사상을 배격하는 것이다.

**# 남김없이 번뇌를 다 없애다**  
일체 번뇌 망상이 다 사라진 구경각은 활연개오(豁然開悟)라 한다. 다문제일 아난존자도 부처님 사후 1차 결집 때는 깨달지 못했다 해서 참석하지 못했다. 이후 맹정진해 대오를 이룬 후에도 비로소 결집에 다시 참석할 수 있었다. 불법은 결정코 깨달음에 있지 지식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리:강지연 기자 jgyang@buddhapia.com

# 한결같은 믿음 끊임없는 정진이 '성불의 길'

바른 깨달음은 선정·지혜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  
구경각인 묘각 성취해 견성해야 '내외명철'  
"佛法은 깨달음에 있지 지식에 있지 않다"

뜻이고, 33조사가 전한 선법은 여래의 심의를 통달하는 법이다. 마조·백장·황벽 스님은 여래선한 거론했지 조사선은 사용하지 않았다. 여래선은 낮고 조사선은 높다 하는데 이는 후대에 조사선이라는 말이 나와 여래선과 구별 짓고 잘못된 견해로 우열을 논하는 자들이 생긴 것이다.

**# 무념이 바른 중지이다**  
일체 망념이 다 떨어진 무심 즉 구경무

이니 이를 무생법인을 증득한 것이라 한다.  
**# 무심을 보임하다**  
구경지를 체득한 대해탈도인은 그저 한가롭고 한가로운 뿐이다. 이것이 보임(保任)이다. 진실한 깨달음은 대무생(大無生) 대무심(大無心) 대열반을 증득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라야 일체를 해탈한 한가로운 도인이 되어 대안락 대자유를 누리며 보임할 수 있다.

중도에 원증(圓證)·분증(分證) 두 가지가 있다. 모든 부처님과 조사님들은 일체를 원만한 깨달아 성취하므로 원증이라 하고, 10지 보살을 비롯한 여러 성인들은 공부한 바에 따라 조금씩 부분적으로 성취하므로 분증이라 한다. 선종에서 말하는 견성은 바로 원증이다.

**#자나 깨나 한결같다**  
아무리 활저하게 깨치고 지견이 하늘을 찌른다 해도 오매일여(癡寐一如)가 되지 않으면 망상이다. 몽중일여는 7지, 숙면일여는 8지 이상에 해당한다. 몽중일여 숙면일여를 까마득히 먼 경지로 생각할 수 있다. 허나 그 불고조와 다름없는 장부의 몸을 타고 났으니 노력하지 않는 것이 장애일 뿐 지극한 마음으로 노력만 하면 누구나 성취할 수 있다.

철저히 깨쳤더라도 오매일여가 되는지 점검해야 하며, 또 오매일여가 되었더라도

佛'의 근본이 무엇인가? 대원경지를 성취해야만 견성이란 것이다. 위산 스님 역시 견성이란 제8아뢰야시의 근본무명이 완전히 타진해 구경각을 성취한 것이라야 참다운 견성이고 이것이 근본 중취임을 밝혔다. 대원경지란 주관적인 상상과 객관적인 상상 그리고 일체망상의 근본이 되는 제8아뢰야식까지 완전히 제거된 것을 말한다.

**# 안팎이 한히 밝다**  
견성을 하면 자신의 진여광명이 시방법계를 환히 비추게 된다. 내외가 명철하여야 견성할 것이지 내외가 명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 내외명철이란 실제로 견성한 이가 아니면 알 수 없다.

부처님께서는 구경각인 묘각을 성취해야만 내외가 명철하지 구경각을 성취하지 못하면 내외명철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구경각이 곧 견성이다.  
**#항상 고요하고 항상 비추다**  
적광, 적조는 구경각을 성취한 부처님의 대열반경계를 표현하는 말이다. 성불한 부처님의 경계는 일체망념이 적멸하므로 적이라 하고, 대지혜의 광명이 걸림 없이 비추므로 광이라고 한다. 이런 적광 적조가 되지 못했다면 그것은 견성이 아니다. 일체 망상이 소멸했다는 말은 지혜광명이 드러났다는 뜻이고 대지혜가 드러났다는 말은 일체망념이 끊어졌다는 뜻이다.

## 詩書로 떠나는 암자기행 ②

오대산 중대암 정인성 시인

군 산에 눈발 쌓여 무릎까지 하얗다  
길 없는 길에 깊은 발자국을 찍으며 들어선  
오대산 중대암  
담 밑에 내어놓은 먹이를 다투는  
산짐승 날짐승의 희기적 눈빛이  
나처럼 멍걸을 걸어온 것 같다

눈발이 쌓이면 군 산도 무릎 걸고  
죽은 듯 꼼짝없고 지내는 중 알았더니  
그런게 아니구나  
질질으로 나 있는 상문을 활짝 열고  
뭇어는 묵숨들을 쓰다듬고 있었구나  
그저서 군 산마다 정침을 세워놓고  
산으로 드나드는 문들 달아놓았구나.

\*중대암(中臺庵): 오대산의 다섯 봉우리 중 동대 서대 남대 북대 중대 가운데 중대에 자리한 사자암을 인근주민들은 중대암으로 부른다.

그림 이상배 화백



## 자동차용 삼고금강저

사고를 예방하고 화를 쫓는 영험!

자동차를 타고 가다보면 운전석 위에 열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 된다. 열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법구경에는 중생들이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삼고금강저다. 칼날이 두개달린 이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3개씩 있는 삼고금강저, 칼날이 양쪽에 5개씩 있는 오고금강저가 있는데 각각 사용하는 뜻이 다르다. 자동차는 항상 사고의 위험을 지니고 달리므로 운행중에 닥쳐올 화를 미리 쫓고, 금강의 지혜로 안전운행하며, 어떠한 시련과 고통이 와도 승리하는 뜻을 지닌 삼고금강저를 자동차에 걸고 다니시면 된다. 전화로 신청하면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준다.

●순금금니로 제작 가격38,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삼재소멸 삼고금강저 벨트

삼재소멸 선물!  
건강의 선물!

삼고금강저벨트는 정해년 삼재가든 처사(남성)님들을 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닐수 있게 제작된 벨트로 삼재소멸특별축원불공을 마치고 출시된 벨트입니다. 2007년부터 삼재가 시작되는 소띠, 뱀띠, 닭띠에 해당되는 처사(남성)님들께는 삼재를 소멸하는 뜻깊은 선물이 될것입니다. 삼재라 하여 삼재가든 모든 사람이 안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삼재기간에도 삼재소멸비방을 잘하고 자중 자애하며 공덕을 쌓으면 삼재기간에도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삼재소멸금강저 건강자동벨트는 고급 천연소가죽에 벨트메커니즘과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실용신안 등록 벨트로 장과 간을 든튼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기능성 고급벨트로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선물로도 품격이 있습니다. 삼재가 끝나해 말일날 삼재소멸 금강저벨트는 흰종이에 싸서 기도하시고 산속에 묻으시면 삼재는 모두 끝납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불광사에서 보내드립니다. 가격:75,000원  
문의전화:(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

▶ 고급케이스에 있어 선물로 품격

## 화제의 지갑

600년만에 온 황금돼지 해 선물은 지갑!  
새로하는 정해년 새지갑으로 평생부자!



## 정해년 삼재 소띠,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막아!

다쳐올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옴마니반메흠 福 지갑

동서남북의 재물을 불러 모으는 영험의 지갑

역경학적으로 일반패지해는 12년마다 오지만 정해년 패지해는 60년마다 온다. 정(丁)은 타오르는 불을 뜻해 붉은 돼지 해라고도 하고 음양의 조화로 붉은돼지 10마리가 모이는 2007년 정해년을 황금 돼지해라 한다. 황금돼지해에 결혼을 하면 평생 풍요롭게 살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평생부자로 살고, 돈의 집인 지갑을 새로이 바꾸면 들고도는 돈이 새지갑으로 온다는 좋은해다. 동서남북의 재물을 모으고 어려움일들이 신통묘통하게 풀린다는 신묘장구 다리니경에 나오는 육자대명 왕진언 올마니 반메흠 복지갑이 황금돼지해를 맞아 선물로 큰 인기 끌고 있다. 점안불공과 축원 불공까지 마친 올마니 반메흠 복지갑은 사용해보는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구입할 정도로 신통묘통한 신비한 영험이 나타나는 것으로 소문이 나왔다. 구입한지 보름만에 절망속에 있던 사업이 귀인을 만나고, 안되던 장사가 호황을 누리고, 팔리지 않아 고민하던 점포가

쉽게 팔리고,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고, 포기한 돈이 갑자기 들어오는 등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 지갑 앞면에는 동서남북의 돈과 복을 부르는 육자대명 왕진언을 넣고 지갑내부에는 들어온 돈과 가진 돈이 헛되어 나가지 않게하는 팔립상보령과만사행통의 비방인 반장을 순금도금하여 부착했으며 천연 고급소가죽에 금·銀·노 처리까지한 지갑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제작되어 있다.

600년만에 찾아온 황금돼지해에는 음양의 조화로 남성은 황금브론즈색지갑, 여성은 적색지갑에 황금색 라인이 있는 지갑을 사용하면 황금돼지해에 모든 소원이 실현된다. 불광사에서는 올마니반메흠 지갑을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원 축원불공을 올려 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여성용장지갑95,000원 남성용 장지갑65,000원 문의전화:02-741-4488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는 악귀와 잡귀를 물리치고 닥쳐올 화를 미리 쫓으며 금강의 지혜를 받아 승리한다는 부처님의 위신력의 법구다. 1분알도 모르는 험한세상 남치, 강도, 살인, 강자승고등 근심과 걱정을 소멸하는 삼고금강저는 안병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가로5cm 폭2cm 순금금니하여 가방또는 지갑속에 넣고 다니면 안전하다. 삼재소멸축원기도를 마친 삼고금강저는 전화로 신청하면 보내준다. 가격35,000원 (02)741-4477 농협:032-12-193445 이상하